

동그라미 세상이야

교육의향



김명희
아동문학가

“우리 집 아이들은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5학년, 6학년 자녀를 둔 엄마가 어느 날 말했다.

“중학교 올라가면 책 읽을 시간이 더 없을 텐데요.” “그렇죠. 책은 꼭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내가 봐도 아이들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책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을까요?”

아이 엄마에게 어떤 말을 해 줘야 옳은 답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요즘 나도 책만 손에 쥐었다면 5분을 넘기지 못하고 잠이 온다. 그런 내가 맘에 맞는 이들과 줌으로써 책 읽기를 시도했더니 두꺼운 책도 읽게 됐다.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문화 속에 등장한 줌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북 토크며 강의는 물론 심지어 두꺼운 책도 읽게 된 것이다. 정한 시간에 만나서 한 페이지씩 운동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권은 거뜬하게 읽어 나갔다. 다 읽고 나면 토론도 한다. 책을 통해 우리는 많은 대화거리도 얻을 수 있고, 많은 어휘력도 넓힐 수 있었다. 말할 때나 글을 쓸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책을 읽으면 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탐색과 내용 이해에 커다라게 이바지한다는 연구 논문도 있다.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아이가 디지털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읽기

능력, 문해력에서 앞서야 디지털 시대의 진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했다. 우리의 아이들이 독서를 싫어하는 이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시간이 많아 상대적으로 독서할 시간과 의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을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는 아이들이 직접 서점에 가서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게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는 것은 독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했다. 무엇보다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려면 내가 읽고 싶은 책,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옳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독서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책을 읽어야 하니까 읽으라고 하는 것은 독서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하루하루 변모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정서도 변천사를 겪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에 맞춰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 본다.

‘하야시 기린이’ 쓴 ‘동그라미 세상이야’라는 그림책이 있다. 동그라미를 좋아하는 동물들이 누구보다 돋보이고 싶어서 둥글게 부풀린 머리로 우아하게 사랑스럽게 동그랗게 하려고 노력했다. 둥글둥글 경연대회를 열고 동그라미의 인기는 날로 높아만 갔다. 그러자 욕심 부리는 이들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다. 바나나도 동그랗게 만들어 판매했고, 공벌레도 인기가 대단했다. 동그라미로 돈을 왕창 벌자 사람들은 무엇이든 동그랗

게 만들기 시작했다. 생일, 크리스마스 밸런타인데이, 기념일, 설날, 추석에도 선물은 둥근 상자에 넣어 보내야 했다.

어느 날 곰이 언덕을 올라가다가 언덕에서 동그라미가 구르기 시작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동그라미 인기는 때때때 굴 굴러떨어지더니 세모들의 세상이 왔다. 이제 모두 세모를 원했다. 뽀족한 게 최고라며 좋아했다. 그런데 세모의 인기는 얼마나 갈까?

다음 차례인 네모의 발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인데 그림책 속에는 변해가는 것을 너무도 쉽게 우리에게 스며드는 것을 잘 보여 준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작가는 많은데 독자가 없어 책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출판사마다 원성이 높다. 시대에 맞게 어떻게 하면 책을 좀 더 가까이 접할 수가 있을까를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초저녁에 산책하다가 우연히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하늘에 반달이 떠 있었다. 하루가 지나자 조금 자기 몸을 더 부풀렸다. 점점 부풀려서 보름 후면 온전한 달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새삼 하면서 우리의 책 읽기가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이라도 꾸준히 천천히 읽어 간다면 바쁜 속에서도 한 권씩 한 권씩 읽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만지는 아이들에게 종이책이 주는 능력을 스며들 수 있게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말을 하고 싶다. 앞으로 줌 독서법보다 더 훌륭한 독서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더 쉽게 하는 독서법이 노력하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社說

광주~완도 고속도로 ‘단일생활권’ 기대

2단계 사업 예타 선정

전남지역 서남권의 숙원이던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고속도로 개통시 광주와 완도간 이동 시간이 1시간 단축되며, 서남권의 관광사업 활성화와 기업 유치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4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건설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했다. 2단계 구간은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총연장 39.9km로 1조 5965억원이 투입된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광주시 서구 벽진동에서 강진 성전까지 총연장 51.1km 구간에 1조 7718억원을 투입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60%다. 이번 예타 대상 선정은 20년 이상 끌어온 숙원사업에 마침표가 될 전망이다. 당초 광주~완도 고속도로는 단계 없이 한 번에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나, 경제성이 떨어진

다는 지적에 1단계 구간을 우선 착공했다.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강진에서 완도까지의 이동시간이 현재 64분에서 43분으로 21분가량 줄어든다. 광주에서 완도까지는 2시간10분에서 1시간10분으로 1시간이 단축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려 1조 201억원의 편익도 발생한다고 한다.

대규모 SOC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은 지방일수록 문턱이 높다. 경제성만 따지는 기초탕에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과 대비해 인구가 적은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예타 선정은 수 년 이상을 공들이지 않으면 기약할 수 없을 정도다.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은 2단계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단계 구간이 예타 통과시 2028년 착공해 2034년 완공된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물류비 절감 뿐 아니라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 단일생활권을 구축한다면 생활인구 증가로 소멸위기가 극복되 기대된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가 광주~전남을 발전시킬 ‘혈관’이 되길 기원한다.

‘달빛동맹’ 지역균형발전 피할 마중물

청소년·스포츠·문화 교류 확대

‘빛고을’의 광주시와 ‘달구벌’ 대구시의 명칭을 따 만들어진 ‘달빛동맹’이 더욱 끈끈해지고 있다. 광주시는 28일부터 31일까지 대구 엑스코(EXSCO)에서 열리는 ‘2024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 광주특산품인 무등산수박과 감치, 딱갈비, 제과·제빵, 전통주 등 14개 업체가 참가한다. 국제식품전은 두 도시의 식품 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달빛동맹관’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의 공직자들은 고향 사랑 상호기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부시장 등 122명이 참여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를 ‘달빛 시리즈’로 이름짓고 두 도시의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등 스포츠 교류도 활발하다. 광주탄소중립지원센터와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 대구기상청, 광주기상청 등 4개 기관은 ‘제1회 광주-대구 폭염 대응 달빛포럼’을 열고 두 도시 간 탄소중립 조기달성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이뿐이던가. 광주시와 대구시는 2022년 11월 하늘길·철길·물길을 여는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맺은 뒤 지난해 4월 공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올해 1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광주와 대구지역 청년미술작가들이 모여 최근 광주시립미술관과 관선재갤러리에서 ‘달빛교류전’을 열었다. 광주·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인공지능 융합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한 이후 교사 수업캠프, 학생 해커톤을 해마다 열고 있다. 한때는 지역주의 정치구조와 갈등해결 절차의 미흡으로 지역갈등이 여전했다. 영호남 지역 갈등은 우리 시대에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 산업과 문화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닮은꼴 도시인 광주와 대구는 이 같은 갈등의 벽을 허물고 화합의 물꼬를 트고 있다. 첫 시작은 작은 실개천이었지만 이젠 물의 흐름을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강줄기로 변모했다. 달빛동맹은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넘어 이젠, 수도권 1극 체계를 막기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달빛동맹이 지역균형발전을 이뤘는 마중물로 자리잡길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24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서 5회말 홈런을 친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시즌 41호포. 오타니는 전날(24일) 홈런과 도루를 각각 1개씩 기록하며 40홈런-40도루를 완성했다. AP/뉴시스

서석대



지난달 말일 장마철이 시작된 기간 기상청의 비 예보가 들어맞지 않는 날이 급격히 잦아졌다.

지난달 24일에는 기상청이 부산 지역에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밤새 154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경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최근 기상청의 비 예보가 유난히 맞지 않는 이유는 올해 장마가 도깨비장마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다. 도깨비장마는 날이 맑은 듯하다가 갑자기 많은 양의 비를 집중적으로 쏟아내는 장마의 형태를 뜻한다.

기상청은 지난 2021년 예산 628억 원을 투입해 슈퍼컴퓨터 5호기를 도입했다. 당시 기상청은 전반적인 기상 모델 수행 능력이 기존 4호기 보다 9.6배 가량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전보다 정확성이 향상된 기상 예측자료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상청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여름철 날씨를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전례에 없던 이상기후로 기후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셈이다. 기후변화는 농업분야에도 영향을 준다. 예측하기 힘든 기상재해는 농업생산과 농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의 재투자에 장애요인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체계와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한 스마트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농업분야 제도개선과 기술수자 강화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농업현장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스마트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

스마트농업은 땅, 햇빛, 기상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서 스마트농업 시설을 도입한 시설원예농가 100여 호를 분석한 결과 도입 첫 해 농업소득이 전년보다 평균 40%이상 증가했고 노동력은 7% 절감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스마트농업 전환으로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농업 분야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진용 취재2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